

가마다스 돔

가마다스 돔에서는 과학, 역사, 문화를 결합하여 시마바라반도의 화산 세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가르쳐 주는 것, 기술을 통해 미래의 분화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힘내다’는 의미의 ‘간바루’라는 말에서 따와 이 이름을 붙인 박물관은 재해에 직면한 상황에서 다시 일어서는 긍정적인 정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돔은 1990년부터 1995년에 걸쳐 발생한 파괴적인 헤이세이 분화를 후세에 알리기 위해 2002년에 세워졌고, 박물관 직원들은 지역의 분화에 대한 역사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전시물을 제작했습니다. 가미시바이풍의 멀티미디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1792년 시마바라 대재해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체험형 전시에서는 화산 모니터링과 방재 하이테크 월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